

교육대학교 사회과 심화과정 지리 영역의 현상과 개선 방향

전중환*

The Status Quo and New Directions in Geography Education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Universities of Education

Jong-Han Jeon*

요약 :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최소한 과반수는 학부 4년 동안 지리 강좌를 전혀 이수하지 못한 채 학교 현장에 투입되며, 그 수준에서 사회교과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지리 영역을 담당한다. 이 연구는 교육대학교 사회과 심화과정 지리 영역의 현상을 기술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 취한 관점은 심화과정의 편제를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수준의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을 준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전공과정과 심화과정의 사회과교육(공통) 강좌의 중복성, 교양과정과 심화과정 강좌의 비연동성, 심화과정 구성에 있어 특정 영역에 대한 편중성 등이 지리 영역의 취약성과 직결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국가 수준에서 규정한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의 조화, 그리고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 간의 형평성을 준거로 삼아 초등 지리 영역의 취약성을 만회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대학교, 심화과정, 전공과정, 교양과정, 초등지리교육.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status quo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universities of education in Korea, to extract the questions at issue, and to suggest new directions for improvement. To approach these purposes, the author grasps the viewpoints that the intensifying course of the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is investigated with relation not only to the national curriculum on elementary social studies but also to both specialization course and liberal arts course. Intensifying course have been organized to strengthen the teaching-learning abilities on the subject matter contents since the beginning. But the present day, intensifying course meets several problems waiting solution: problems in reference to overlap with specialization course, to disconnection with liberal arts course, and to the internal disequilibrium. So, the author proposes six solutions for the problems.

Key Words : curriculum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university of education, intensifying course, specialization course, liberal arts course,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1. 머리말

이 연구는 전국 사회과 심화과정에서 각 영역이 어떤 비율로, 어떤 성격의 과목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지를 현상 그대로 진단하고, 그 속에서 지리 영역의

취약성을 낳고 있는 요인들을 도출함으로써 추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지리교육이 처한 문제의 성격은 교과학적 연구·실천의 핵심인 지리교육과정의 연구·개발·실천에 관한 평가가 미흡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남상준,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 전임강사(Full-time Lecture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onghan@gin.ac.kr

2002, 1). 그간 지리교육과정에 관한 교과학적 연구와 평가는 초등보다는 중등교육과정에 편중된 편이었다 (류재명·서태열, 1997; 이희열·주미순, 2003; 조성욱, 2004; 최원희, 2004; 류재명, 2005; 박선미, 2005). 이와 연동하여 중등 사범대학의 지리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 교육대학교의 지리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중등 사범대학이 무늬만 사회과교육이라면 교육대학은 속까지 사회과교육이다”(송언근, 2004, 230)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은 지리가 사회과교육의 일부임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과정의 지리 영역이 현실적으로 사회과교육이라는 강력한 틀 속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육대학교의 지리교육과정 역시 사회과교육과정(심화과정)의 테두리 안에 포섭되어 있음을 함축한다. 현 초등교육과정 사회과의 교육 내용은 중등교육과정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사회’(일반 사회 영역), ‘인간과 시간’(역사 영역), ‘인간과 공간’(지리 영역)으로 삼분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인간과 사회’, ‘인간과 시간’에서도 지리 교육이 실천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인간과 공간’이 지리 교육이 실천되는 주된 장이다(남호엽, 2002, 53-54). 이를 반영하여 초등 사회 교과서의 내용 역시 이들 세 영역이 서로 균등한 비율을 차지하며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사회과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초등교육과정 및 초등 사회 교과서에 기술된 영역 간 조화에 입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초등사회과 예비 교사는 균형 잃은 기형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고, 그 결과 초등 교육 현장에서의 지리 교육은 크게 위축되거나 내용상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전국 교육대학교의 사회과 심화과정 중 특히 지리 영역의 현 실태가 어떠한지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 보고, 그것에 연루된 맥락을 영역별 비율과 과목의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 및 해석하며, 이로부터 교육대학교 지리 영역의 취약성을 만회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중등 사범대학의 지리교육과정이 지리교육학과 내지 지리교육전공이라는 독립된 공간 속에서 편성되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반해, 교육대학교의 지리교육과정은 사회과 교육과정 안에서 편제되므로 영역 간 이해관계에 침예하게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청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해 왔다. 이 시점에서 교육대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이 교육의 논리와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안정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現狀(the status quo)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그로부터 올바른 방향 감각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연구의 관점

교육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핵심은 사회과 심화과정에 있다. 심화과정의 실태와 그 속에서 지리 영역의 현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1년 전국의 교육대학이 2년제에서 4년제로 승격된 이래,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과정 구성의 기초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각 과정별 이수 학점에 있어서는 대략 전공과정이 교양과정의 두 배 이상이고(전공과정 \geq 교양과정 * 2), 교양과정은 심화과정의 두 배 이상이다(교양과정 \geq 심화과정 * 2).

먼저 교양과정은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등 각 계열별로 출자하여 개설한 강좌들로 구성된다. 전공과정은 교육학 일반, 각 교과별 교과교육학, 교육실습 강좌들을 포함하고 있고, 심화과정은 장래에 교과 전담제가 실시될 가능성을 예상하여 혹은 중학교 교과지도를 담당할 것에 대비하여 설치된 것이었다.¹⁾

이와 같이 각 교과별 교과교육학은 전공과정 속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심화과정은 자연히 교과내용학 강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가령, 사회과교육학 같은 교과교육학 강좌는 전공과정에서 개설되는 것이고, 경제학, 인문지리 같은 교과내용학 강좌는 심화과정에 편입되어 운영된다는 뜻이다.

경인교육대학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제1차 교육과정 개정시(1983) 과정별 이수 학점은 심화과정이 총 21

학점, 교양과정은 49학점, 전공과정은 70학점이었다. 그리고 1981년에 제출된 교육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공과정에서는 <초등사회과 교수법>과 <초등사회과 교재연구>라는 교과교육학 강좌가 필수로 개설되었고, 심화과정에서는 일반사회 관련 3강좌(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관련 2강좌(한국사, 세계사), 지리학 관련 2강좌(인문지리학, 지리조사법) 등 교과내용학 강좌들이 영역(일반사회, 역사, 지리)별로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며 개설되었다(1983년).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할 만한 것은 교양과정의 성격이 중등 사범대학 혹은 일반 대학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교육대학교에서 교양 과정은 명칭만 교양과정일 뿐 사실상 교과내용학 부문을 이수하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교대생들에게 교양과정은 가벼운 마음으로 교양을 쌓는 곳이 결코 아니며, 교육대학교 4년 동안 자신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가르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등에 관한 내용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주된 공간인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각 교과에 필요한 내용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없으므로, 그것을 학과별로 나누어 좀 더 심화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이른바 심화 과정(혹은 부전공과정)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역으로, 각 개인이 선택한 심화과정(학과) 이외 분야의 내용학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은 바로 교양과정이 유일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 체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심화과정의 성격이나 내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심화과정은 전공과정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교양과정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비 교사의 자질 함양을 지원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들 삼자가 서로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 심화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준거로 삼아 분석되어야 하고 또한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주지하듯이 초등교육과정에서 사회, 과학 등 몇몇 교과는 다분히 통합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교과에서 교과 내적으로는 일반사회, 지리, 역사 등과 같은 영역 간 역학 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 표준 교육과정과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을 준거로서 국

가 수준 교육과정에 논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심화과정 속 지리 영역의 현상과 그 취약성³⁾

1)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간의 비율을 통해 본 지리 영역의 취약성

여기에서는 전국 교대의 사회과 심화과정에서 영역 간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심화과정 속 지리 영역의 실태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총 개설 학점과 실제 이수학점, 교과내용학 및 교과교육학 부문(sector)의 상대적 비율을 산출하였고, 다시 교과내용학 및 교과교육학 각각에 대해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의 비율을 파악하였다(표 1). 그 결과 심화과정에 개설된 총 학점은 대학에 따라 16~30학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이수 학점은 대부분 21학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전국 11개 교육대학교 중 3개 대학, 즉 서울교대(16학점), 청주교대(17학점), 부산교대(22학점) 뿐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전국의 교육대학교 사회과 심화과정은 교과내용학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과내용학 비율이 높은 대학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부산교대 90.9%, 경인교대 75%, 춘천교대 75%, 광주교대 71.43%, 대구교대 71.4%, 공주교대 66.67%, 제주교대 61.9%, 청주교대 58.8%이다. 이것은 '교과내용학의 심화 학습'이라는 심화과정의 당초 설치 취지가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별로 상세히 살펴볼 여지는 있겠으나 아마도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심화과정에서 교과내용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보다 더 높았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주교대의 경우는 교과교육학의 비율이 80%로서 기형적일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울교대, 전주교대 역시 50%로서 교과교육이 전공과정에서 이미 필수로 이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비중이다. 이것은 최근 이들 대학에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 특히 일반사회 전공 배경의 사회과교육

표 1. 사회과 심화과정의 부문별 이수 학점과 영역 간 비율(2006년)

구분	교과내용학 부분	교과교육학부분
경인교대	- 24학점이 개설되어 있고 이중 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75%를 차지한다(24학점 중 18학점). - 일반사회 66.67%, 역사 33.33%, 지리 16.67%이다.	- 25%를 차지한다. - 역사교육 50%, 지리교육 50%이다. 일반사회교육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공주교대	- 27학점이 개설되어 있고 이중 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66.67%를 차지한다(27학점 중 18학점). - 일반사회 45.45%, 역사 33.33%, 지리 16.67%이다.	- 33.33%를 차지한다. - 일반사회교육 33.33%, 역사교육 33.33%, 사회과교육(공통) 강좌 33.33%이다. 지리교육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광주교대	- 21학점이 모두 필수로 개설되어 있다. - 71.43%를 차지한다(21학점 중 15학점). - 일반사회 60%, 역사 20%, 지리 20%이다.	- 28.57%를 차지한다. - 일반사회교육 50%, 역사교육 50%이다. 지리교육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대구교대	- 21학점이 모두 필수로 개설되어 있다. - 71.4%를 차지한다(21학점 중 15학점). - 일반사회 40%, 역사 33.33%, 지리 26.67%이다.	- 28.6%를 차지한다. - 일반사회교육 33.33%, 역사교육 33.33%, 지리교육 33.33%이다.
부산교대	- 22학점이 모두 필수로 개설되어 있다. - 90.9%를 차지한다(22학점 중 20학점). - 일반사회 45.45%, 역사 18.18%, 지리 27.27%이다.	- 9.1%를 차지한다. - 역사교육 100%이다.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서울교대	- 28학점이 개설되어 있고 이중 1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50%를 차지한다(28학점 중 14학점). - 일반사회 42.9%, 역사 28.6%, 지리 28.6%이다.	- 50%를 차지한다. - 일반사회교육 14.3%, 역사교육 14.3%, 사회과교육(공통) 강좌 72.4%이다. 지리교육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전주교대	- 30학점이 개설되어 있고 이중 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50%를 차지한다(30학점 중 15학점). - 일반사회 40.0%, 역사 40.0%, 지리 20.0%이다.	- 50%를 차지한다. - 일반사회교육 40%, 역사교육 20%, 지리교육 40%이다.
제주교대	- 21학점이 모두 필수로 개설되어 있다. - 61.9%를 차지한다(21학점 중 13학점). - 일반사회 23.07%, 역사 38.46%, 지리 53.84%이다.	- 38.1%를 차지한다. - 역사교육 25%이고, 사회과교육(공통) 강좌가 75%이다.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진주교대	- 30학점이 개설되어 있고 이중 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20%를 차지한다(30학점 중 6학점). - 일반사회 100%이고, 역사와 지리 영역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 80%를 차지한다. - 일반사회교육 25%, 역사교육 12.5%, 지리교육 12.5%, 사회과교육(공통) 강좌 50%이다.
청주교대	- 17학점이 모두 필수로 개설되어 있다. - 58.8%를 차지한다(17학점 중 10학점). - 일반사회 20%, 역사 50%, 지리 30%이다.	- 42.2%를 차지한다. - 일반사회교육 28.57, 지리교육 28.57%, 사회과교육(공통) 강좌는 42.85%이다. 역사교육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춘천교대	- 36학점이 개설되어 있고 이중 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75%를 차지한다(36학점 중 27학점). - 일반사회 33.33%, 역사 44.44%, 지리 22.22%이다.	- 25%를 차지한다. - 사회과교육(공통) 강좌 100%이다.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전담 교수가 다수 임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 이들 대학의 예비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내용학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심화과정에서 교과교육학 부분의 비율이 높은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경제교육, 세계지리교육, 근

현대사교육 등 심화된 강좌명 하에 개설된다면 어느 정도 내용학적 지식을 다룰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전주교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교대와 진주교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두 대학의 사회과 심화과정에 개설된 교과교육 강좌명은 <사회과교육특강>, <사회과교재론>, <사회과평가방법>, <가치교육> 등 사회과교육(공통)에 해당하는 메타적 성격의 강좌들이다. 이 같은 구성은 '교과 내용의 심화'라는 심화과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공과정에서 필수로 이수하고 있는 사회과교육 강좌와 여러 가지 면에서 중복된다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사회과교육(공통)에 관한 메타적 강좌의 경우 그것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회과교육 전담 교수의 출신 배경은 사실상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중 하나로 수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 한국교원대, 경북대를 비롯한 전국의 대부분 교육대학원에서는 지리(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중 하나의 이름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²⁾

따라서 이들 세 부류 전공 출신의 박사학위자들이 교육대학교 심화과정의 사회과교육(공통) 강좌들을 담당해야만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일반사회, 지리, 역사 영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교육의 논리에 맞다.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육대학교 사회과 예비 교사들은 일반사회 편향의 사회과교육만을 이수하거나, 혹은 지리교육 편향의 그것만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역사교육 편향의 사회과교육을 이수하는 식이 되고 말 것이다. 심화과정에 개설된 사회과교육 강좌를 어떤 전공 배경의 교과교육학자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충분히 논란거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대학교의 사회과 심화과정은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과내용학을 중심으로 편성하되, 교과교육학 부문의 강좌를 편입할 경우 사회과교육(공통)에 관한 것이 아닌 세부 영역별 교과교육 강좌이어야 할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

2) 일반사회, 역사, 지리 영역 간의 비율에서 확인된 지리 영역의 취약성

이번에는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 각각의 안에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의 상대적 비율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다만 교과교육학의 세부 영역은 이들 세 가지 영역 외에 사회과교육(공통) 영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어떤 강좌명을 어떤 영역으로 분류하였는지 구체적 예를 제시하면, <초등지리교재론>(경인교대), <향토지리교육론>(대구교대), <지리수업 및 평가론>(전주교대) 등은 지리교육 영역에 포함시켰고, <초등역사교육론>(공주교대), <역사교육학>(광주교대), <역사교육방법론>(제주교대) 등은 역사교육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사회교육론>(광주교대), <정치·경제교육론>(진주교대), <민주시민생활과 법교육>(서울교대) 등은 일반사회교육 영역으로, 그리고 <사회과교육특강>(서울교대), <초등사회과교육세미나>(제주교대), <사회과교수법의 이론과 실제>(춘천교대) 등은 사회과교육(공통)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심화과정에 개설된 교과교육학 부문을 네 개의 영역, 즉 지리, 역사, 일반사회, 사회과교육(공통)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한편 심화과정의 교과내용학 부문은 지리, 역사, 일반사회 세 영역으로 간단히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사회과 심화과정에 개설된 교과내용학 부문의 영역간 비율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일반사회 영역으로 나타났다. 일반사회 영역은 전국 11개 교육대학교 중 8개 대학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역사 영역은 3개 대학(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지리 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1개 대학(제주교대)뿐이었다. 특히 진주교대는 지리, 역사 영역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일반사회 영역만 100%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분야를 향한 편중성이 가장 심했다. 역사 영역은 대학별로 크게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지리 영역은 11개 대학 중 5개 대학에서 일반사회 영역의 1/2 이하의 비중으로서 일반사회와의 관계에서 그 편차가 매우 컸다. 세 영역 간 편차가 가장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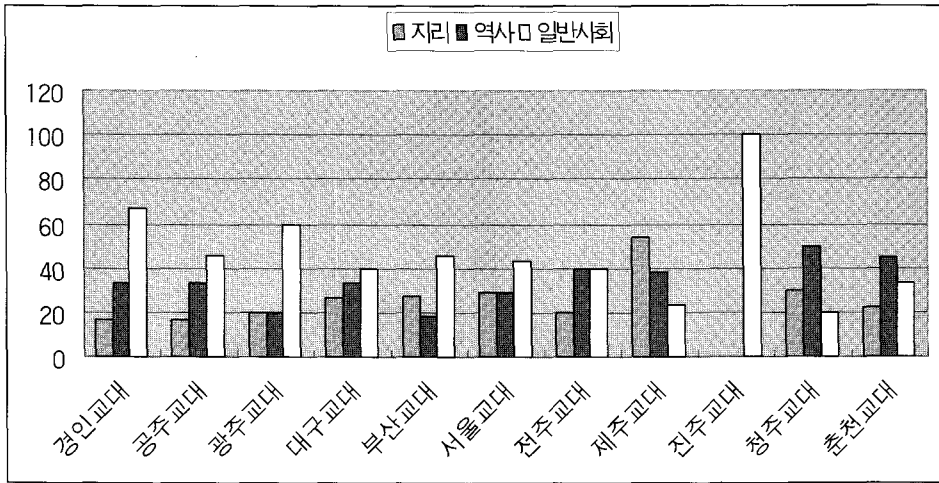


그림 1. 사회과 심화과정 교과내용학 부문의 영역간 비율(2006년)

주: 전국 11개 교육대학교 중 8개 교육대학교에서 일반사회 영역이 우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역사 영역은 3개 교육대학, 그리고 지리 영역은 1개 교육대학에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이 심화과정 교과내용학 부문의 영역간 편차가 비교적 큰 편인데, 교양과정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면 세 영역 간의 실제 편차는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 영역 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은 대구교대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

이 같이 심화과정 내에서 교과내용학 부문의 영역간 편차가 비교적 큰 편인데, 교양과정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면 세 영역 간의 실제 편차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교양과정에서 일반사회와 역사 영역은 전국 11개 교육대학교 중 7개 이상의 대학에서 필수 강좌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지리 영역이 교양 필수로 지정된 곳은 공주교대가 유일하였다. 이러한 영역 간 편차는 초등사회과 예비 교사의 지리 교육 실천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 중일 것이다.

가령 진주교대의 사회과 심화과정에서는 지리와 역사 영역의 내용학 강좌가 개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주교대의 사회과 예비 교사들은 지리를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 사회과의 1/3을 차지하는 지리 영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안고 졸업한다. 그것이 현장 지리 교육의 취약성과 내용 지식의 왜곡을 결과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나마 역사 영역은 교양 필수로 지정되어 있어 학습할 기회가 확보되어 있지만, 지리 영역은 교양과정에서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진주교대생들의 지리 영역에 대한 학습의

취약성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교대, 전주교대, 춘천교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대학교 심화과정의 교과내용학 부문은 국가 수준의 현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을 준거로 삼아, 교양과정과 심화과정을 총괄하여 일반사회, 역사, 지리 영역이 1/3씩 균형을 이루도록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사회과 심화과정에 개설된 교과교육학 부문의 영역 간 비율을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견 교과교육학 부문의 영역 간 편차가 교과내용학의 그것에 비해 큰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공주교대와 대구교대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비율이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반면에, 부산교대는 역사교육 영역만, 춘천교대는 사회과교육(공통) 영역만 개설되고 있었다. 영역 별로 보면 지리교육 영역이 전혀 개설되지 않은 대학은 광주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제주교대, 춘천교대 등 5개 대학이며, 역사교육 영역이 개설되지 않은 곳은 청주교대와 춘천교대 2개 대학, 일반사회교육 영역이 개설되지 않은 곳은 경인교대, 부산교대, 제주교대, 춘천교대 등 4개 대학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서울교대, 제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의 경우 사회과교육(공통)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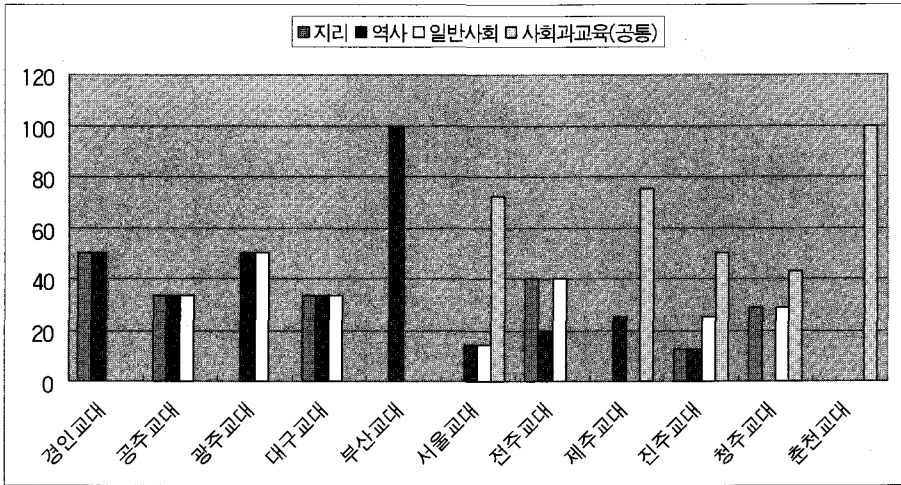


그림 2. 사회과 심화과정 교과교육학 부문의 영역간 비율(2006년)

주: 전국 11개 교육대학교 중 5개 교육대학교에서 지리 영역이 전혀 개설되지 않고 있었다. 교육대학교 전체 필수인 사회과교육 강좌(4학점) 및 위 도표에 나타난 심화과정 중의 사회과교육(공통) 강좌들을 대체로 일반사회 전공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염두에 두면, 교과교육학 부문에서 지리 영역의 취약성은 위의 도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런데 교수 요목 및 담당 교수의 전공 배경을 보면 제주교대를 제외한 모든 교대의 사회과교육 관련 강좌들은 모두 일반사회교육 편향의 사회과교육 강좌이다.

지리 영역은 내용학 측면에서는 일반사회 영역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 교과교육 측면에서는 사회과교육(공통) 영역과 큰 격차를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내용학 측면과 교과교육학 측면에서 모두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모든 교육대학교는 전공과정에서 사회과교육을 4~7학점까지 필수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화과정에서 사회과교육(공통) 강좌가 재차 등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내용 영역에 정합하는 구체적인 '심화 교과교육' 강좌들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심화과정 과목의 성격 속에서 살펴본 지리 영역의 실태

강좌 이름 및 강의 목표를 검토한다면 심화과정에

어떤 성격의 과목들이 개설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과내용학 부문의 경우는 순수 내용학을 강의하는 경우와 궁극적으로 초등 사회과 교육 내용에 연결시키는 경우로 양분할 수 있고, 교과교육학의 경우는 메타적 성격의 강좌, 영역별 내용 특성에 정합하는 강좌,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지향하는 강좌로 대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심화과정의 교과내용학은 순수 내용학 강의를 지향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광주교대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강의 목표의 면에서 이 대학의 교과내용학 강좌들은 순수 내용학을 지향하고 있다. 가령 <한국경제의 이해>라는 강좌의 목표는 "한국 경제의 문제, 이론, 발전 현황, 장래의 과제 등을 강의한다"로 되어 있고, <한국사특강>이라는 강좌 역시 "교양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문화사, 사회·경제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 10개 주제를 설정하여 탐구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회문제와 사회조사>라는 강좌에서도 "사회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회문제의 원인을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표 2). 춘천교대의 경우 <현대사의 제문제>라는 강좌의 목표는 "근현대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연구한다"이고, <경영의 세계>라는 강좌는 "경

표 2. 광주교육대학교 심화과정의 과목별 성격

강좌명	향토지리조사	구분: 필수	학점: 3(3)
강의목표	지리조사의 일반이론을 개관하고 실습을 통해 지역연구 방법을 터득하며, 초등지리교육의 지도 능력을 배양한다.		
강의내용	지리조사의 이론을 학습하고, 연구지역을 설정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 정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위에서 인간생활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특기사항	• 교과내용학(지리)/실습 강좌		
강좌명	한국경제의 이해	구분: 필수	학점: 3(3)
강의목표	한국경제의 문제, 이론, 발전현황, 장래의 과제 등을 강의한다.		
강의내용	한국경제의 이론, 구조, 발전현황, 정책, 무역, 장래의 과제 등을 익힌다.		
특기사항	• 교과내용학(일반사회)/이론 강좌		
강좌명	일반사회교육론	구분: 필수	학점: 3(3)
강의목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류학에 대한 교과교육을 배운다.		
강의내용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류학의 학문적 배경을 심도있게 교수-학습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특기사항	• 교과교육학(일반사회)/이론 강좌		
강좌명	한국사특강	구분: 필수	학점: 3(3)
강의목표	한국사를 주제 중심으로 이해한다.		
강의내용	교양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문화사, 사회·경제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 10개 주제를 설정하여 탐구한다.		
특기사항	• 교과내용학(역사)/이론 강좌		
강좌명	시민사회와 법	구분: 필수	학점: 3(3)
강의목표	사회와 법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강의내용	다양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그 법적 체계, 법적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가치관을 형성케 한다.		
특기사항	• 교과내용학(일반사회)/이론 강좌		
강좌명	역사교육학	구분: 필수	학점: 3(3)
강의목표	역사교육의 위상과 의의를 이해하고 역사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심화하고 실제적 기능을 습득한다.		
강의내용	역사교육의 역사, 현대역사학과 역사교육의 새로운 동향, 역사의 교수-학습, 역사교육의 자료 등에 대해 탐구한다.		
특기사항	• 교과교육학(역사교육)/이론 강좌		
강좌명	사회문제와 사회조사	구분: 필수	학점: 3(3)
강의목표	사회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회문제의 원인을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이해한다.		
강의내용	사회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과학적 조사, 예방과 치료 등의 대책을 파악한다.		
특기사항	• 교과내용학(일반사회)/이론 강좌		

영학에 대한 기초적 개념과 기업의 경영원리, 집단과 개인의 행동 구조를 이해한다”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 교육대학교 심화과정에 개설된 교과내용학 강좌들은 대체로 순수 내용학 지향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동일한 대학 내에서도 교과내용학 강좌의 성격은 차별적이다. 예를 들면, 경인교대 사회과 심화과정의 <한국사특강>이라는 강좌는 “한국 역사에 관련된

핵심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역량을 배양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같은 대학의 <민주정치론>이라는 강좌는 “민주정치의 이론과 실재를 이해하고 현대 민주정치의 흐름인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을 탐색하여 유능한 민주시민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경우 <민주정치론>이라는 강좌는 교과내용학 강좌이면서도 초등사회과 교육내용과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대구교대의

표 3. 서울교육대학교 심화과정의 과목별 성격

강좌명	사회과학방법론	구분: 필수	학점: 2(2)
강의목표	사회과학방법론을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내용	사회과학의 의의, 사회과학에서의 인간의 문제, 마르크스 사회과학 방법론, 막스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 현대의 사회과학 방법론, 사회과학의 제 영역 상의 개별적인 방법론, 사회조사 방법론과 관련 지식을 배운다.		
특기사항	• 교과내용학(일반사회)/이론 강좌		
강좌명	사회과 수업진단·설계	구분: 필수	학점: 2(2)
강의목표	사회과교육방법에서 배운 바를 토대로 사회과교육상의 수업 진단과 설계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한다.		
강의내용	사회과 교수-학습 계획·진단 및 사회과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과정에 대한 국내의 이론을 심도있게 다룬다.		
특기사항	• 교과교육학(사회과교육공통)/이론 강좌		
강좌명	사회과교육 특강	구분: 필수	학점: 2(2)
강의목표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배운다.		
강의내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례학습, 표본조사학습, 현장학습, 인물학습, 문헌조사학습, 사료학습 등 사회과교육의 각 학습방법을 익힌다.		
특기사항	• 교과교육학(사회과교육공통)/이론 강좌		
강좌명	사회과평가방법	구분: 필수	학점: 2(2)
강의목표	사회과 평가방법의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강의내용	사회과교육개론과 사회과교육방법에서 배우는 이론과 방법론에 더하여 사회과교육 평가의 새로운 동향, 사회과 평가의 이론적 기초, 사회과 수업과정의 평가방법, 평가의 실제 등을 다룬다.		
특기사항	• 교과교육학(사회과교육공통)/이론 강좌		
강좌명	경제질서와 한국경제	구분: 선택	학점: 2(2)
강의목표	사회과 경제 영역에 대한 중요한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내용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한국의 경제 질서를 이해한다.		
특기사항	• 교과내용학(일반사회)/이론 강좌 • <한국 근현대사> 강좌와 택일 관계이므로, 사실상의 학점은 1		
강좌명	한국 근현대사	구분: 선택	학점: 2(2)
강의목표	사회과 역사교육을 염두에 두고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한다.		
강의내용	최근 부상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동향을 이해하고, 조선말기로부터 일제시기, 광복 이후 최근까지의 정치사를 중심으로 그 성과를 익힌다.		
특기사항	• 교과내용학(역사)/이론 강좌 • <경제질서와 한국경제> 강좌와 택일 관계이므로, 사실상의 학점은 1		
강좌명	민주시민생활과 법교육	구분: 선택	학점: 2(2)
강의목표	법교육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검토함으로써 법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강의내용	법교육의 목적과 외국의 법교육 동향, 우리나라 법교육 내용 개관, 법교육의 방법론과 문제점 등을 검토한다.		
특기사항	• 교과교육학(일반사회교육)/이론 강좌 • <지역의 이해와 연구> 강좌와 택일 관계이므로, 사실상의 학점은 1		
강좌명	지역의 이해와 연구	구분: 선택	학점: 2(2)
강의목표	사회과의 지역화를 염두에 두고, 지역 연구의 성격, 목적,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내용	지역 연구의 성격, 목적, 내용상의 특성, 지역 이해의 실제, 지역 감정의 문제, 지역 이해 교육의 원리와 방법 등을 다룬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육학(지리교육)/이론 강좌 • <민주시민생활과 법교육> 강좌와 택일 관계이므로, 사실상의 학점은 1 		
강좌명	역사교육론	구분: 선택	학점: 2(2)
강의목표	역사교육 이론에 대해 익힌다.		
강의내용	사회과에서의 역사교육의 위치, 역사교육의 기초,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향, 역사교육의 실체를 다룬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육학(역사교육)/이론 강좌 • <전쟁과평화> 강좌와 택일 관계이므로, 사실상의 학점은 1 		
강좌명	전쟁과평화	구분: 선택	학점: 2(2)
강의목표	국제정치에 대해 배운다.		
강의내용	국제정치의 중요한 주제로서 전쟁과 평화를 다룬다. 세계화의 전략과 정책, 한반도의 통일을 둘러싼 열강들의 이해관계와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 동서독의 통일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내용학(일반사회)/이론 강좌 • <역사교육론> 강좌와 택일 관계이므로, 사실상의 학점은 1 		
강좌명	사회과교재연구	구분: 선택	학점: 2(2)
강의목표	사회과 교수-학습 자료를 이해한다.		
강의내용	사회과 교재의 문제를 재검토한다. 종래에는 사회과부도, 사회과탐구에만 의존해왔으나, 여기에서는 사회과교재의 의의와 종류, 사회과 학습 방법의 다양한 개발과 교재의 선정, 활용, 자료실 운영 등에 대해 다룬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육학(사회과교육공통)/이론 강좌 • <사회과자료제작> 강좌와 택일 관계이므로, 사실상의 학점은 1 		
강좌명	사회과자료제작	구분: 선택	학점: 2(2)
강의목표	사회과교재론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작하는 원리와 기술적 방법을 익힌다.		
강의내용	사회과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 원리 및 활용방법을 익히고, 특히 멀티미디어시스템을 사회과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한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육학(사회과교육공통)/실습 강좌 • <사회과교재연구> 강좌와 택일 관계이므로, 사실상의 학점은 1 		
강좌명	문화유적답사	구분: 선택(자유)	학점: 2(2)
강의목표	수도권의 야외조사를 실시한다.		
강의내용	서울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유적지를 조사하고, 문화의 현장을 확인하며, 사진, 비디오테이프, 기록물, 인쇄물 등을 수집한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내용학(역사)/실습 강좌 • <사회과현장학습> 강좌와 택일 관계이므로, 사실상의 학점은 1 		
강좌명	사회과 현장학습	구분: 선택(자유)	학점: 2(2)
강의목표	초등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현장 지역에 관한 연구, 조사 방법을 익힌다.		
강의내용	촌락, 도시, 산업, 교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영역에서 현장학습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내용학(지리)/실습 강좌 • <문화유적답사> 강좌와 택일 관계이므로, 사실상의 학점은 1 		

<지도제작 실습>, 제주교대의 <역사학특강>, <경제지리연구>, <한국지리연구>, <세계지리연구>, 춘천교대의 <한국경제의 구조와 실제>, <한국사의 재조명> 등

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강좌들이다. 요컨대 심화과정의 교과내용학 영역에 개설된 과목의 성격은 순수 내용학 지향이 지배적인 가운데, 부분적으로 초등사회

과 교과서 내용의 심화 학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심화과정의 교과교육학 영역이 사회과교육(공통)과 관련된 메타적 성격의 과목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서울교대가 대표적이다(표 3). 서울교대의 경우 교과내용학, 특히 지리 영역이 크게 축소되어 있고, 그 대신 <사회과 수업진단·설계>, <사회과교육 특강>, <사회과평가방법>, <사회과교재연구>, <사회과자료제작>, <사회과현장학습> 등 사회과 교육(공통)에 해당하는 강좌들이 대거 편입되었다. 이들 강좌는 심화과정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전공과정에서도 <사회과교육개론>과 <사회과교육방법>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심화과정과 전공과정의 내용 중복이 우려되는 한편, 사회과의 다양한 내용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탐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심화과정의 설치 취지에도 어긋나는 편제이다. 진주교대 역시 이 유형에 근접한다.

셋째, 심화과정의 교과교육 영역이 구체적인 내용 특성에 정합하는 교과교육 강좌들로 구성된 경우가 있다. <초등일반사회교육론>, <초등지리교육론>, <초등 역사교육>, <향토사교육>, <한국시대사교육>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전주교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진주교대의 <역사교육론>, <지리교육론>, <정치·경제교육론>, <사회·문화교육론>, 경인교대의 <초등지리교육론>, <초등역사교육론>, 공주교대의 <초등경제교육론>, <초등역사교육론>, 광주교대의 <일반사회교육론>, <역사교육학> 등도 그러한 성격의 강좌들이다.

넷째,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지향하는 교과내용 및 교과교육 강좌들도 확인된다. 공주교대의 <백제의 역사와 문화>, 광주교대의 <향토 지리조사>, 대구교대의 <향토지리교육론>, <향토사교육론>, 서울교대의 <문화유적답사> 등 전국적으로 총 5개의 강좌가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대구교대 사회과 심화과정의 경우는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의 균형은 물론, 심화과정의 편제에 있어 국가 교육과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이상적 유형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향토지리교육론>, <향토사교육론> 등의 강좌는 국가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강

좌인 동시에, 중요한 사회과 탐구 활동인 지역답사와 사회조사를 병행할 수 있는 과목이다.

5. 제언 :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교육대학교 사회과 심화과정 중 지리 교육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첫째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의 균형 잡힌 편제, 둘째 지리, 역사, 일반 사회 영역 간의 형평성의 논리, 셋째 국가 수준의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준거해서 정리하기로 한다. 연구자는 도출된 제 문제점들을 미래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전공과정, 교양과정,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전공과정에서 교과교육 영역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과교육> 강좌가 이론(사회과교육 I)과 실제(II)로 나뉘어 전공과정에서 5학점 내외(최소 4~최대 7학점)로 필수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교육대학교의 전체 교육과정상에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영역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맥락에서, 심화과정은 교과내용학 영역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심화과정의 설치 취지에도 부합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심화과정(총 21학점 기준)에 개설될 교과내용학 영역의 학점은 일반사회, 역사, 지리 영역에서 각각 5학점씩 개설하는 것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어떤 시각에서는 초등 교과서의 단어나 문장의 평이 함만을 언급하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쉽다고 판단하고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수업 전략이나 기법이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초등 교육과정이 표면상 쉬운 이유는 중등교육과정에 비해 더욱 누적적인 교수학적 변환이 이루어진 결과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과서 내용을 표피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자칫 내용상의 탈맥락화와 몰이해로 치달을 우려가 있을 것이다. 심화과정은 사회과 예비 교사들이 초등사회과 교육 내용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사회학, 역사학, 지리학 등 제 학문 분야에 대한

기본 개념, 성과, 최근 동향을 학습하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심화과정의 교과내용학 영역은 교양과정에 개설된 사회계열 강좌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연동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현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에 준거하여 일반사회, 역사, 지리 영역 간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는 그 형평성이 심각하게 깨뜨려져 있는 편이며, 이것이 초등사회과 예비 교사들에게 특정 분야에 대한 편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있고 반면에 지리 영역에 대한 학습 기회를 대단히 축소시키고 있다. 더욱이, 일반사회나 역사 영역이 대부분 교육대학교의 교양과정에서 필수 강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지리 영역의 학습에서 상당한 취약성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셋째, 위의 연장선에서 현 심화과정 교과내용학 영역의 내부적 재편이 필요하다. 대부분 교육대학교에서 일반사회 영역의 교과내용학은 정치, 경제, 법, 사회과학 등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지리 영역은 단지 1개의 강좌로 개설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강좌를 세분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에 걸치는 훨씬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지리 영역의 스펙트럼과 비교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교육적 목적에서 강좌를 통합하는 문제는 교육의 논리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에 들어 있지 않은 세계사 영역 관련 강좌가 설치되어 있는 교육대학교가 있는 반면(진주교대는 필수), 초등사회과(6학년)에서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세계지리 관련 강좌는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심화과정 교과내용학 영역의 구성을 보면, 많은 교육대학교들에서 일반사회 영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순이다. 특히 일반사회와 역사 영역 간의 격차에 비해 역사와 지리 영역 간의 격차가 컸으며, 결과적으로 일반사회와 지리 영역 간의 격차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 초등교육과정이 인간과 사회(일반사회 영역), 인간과 시간(역사 영역), 인간과 공간(지리 영역)에 의해 각각

1/3씩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세 영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이 절실하다. 따라서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일반사회 강좌들은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으로 단순화되거나 통합된 이름으로 개설되어야 할 것이고, 역사 영역에서는 세계사 대신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중세사>, <근·현대사> 등의 강좌 개설이 요구되며, 지리 영역은 <인문지리>, <자연지리>, <세계지리> 등으로 세분화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심화과정의 교과교육학 영역은 <사회과교육>과 같은 포괄적, 메타적 강좌보다는 심화된 교과교육 과목명 하에 개설되는 것이 심화과정의 설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다시 말해서, 사회과교육(공통) 강좌는 전공과정에서 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화과정에서는 '심화적 성격의 교과교육', 즉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등으로 나누어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심화과정의 총 이수학점이 대체로 21학점인 것을 고려할 때, 교과교육학 영역이 차지하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잡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행 몇몇 교육대학교의 심화과정에서는 사회과교육(공통) 강좌가 개설되고 있어 전공과정의 학습 내용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사회교육의 강좌가 다른 영역, 즉 역사교육이나 지리교육에 비해 세분되어 있어(가령 법교육, 경제교육, 정치교육 등), 이 부분에서도 영역 간 균형론에 입각한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과목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 심화과정은 대부분 이론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학습 내지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추구한다는 맥락에서 야외실습 관련 강좌가 새롭게 증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과 탐구를 실천할 수 있는 강좌들, 즉 사회조사, 박물관 학습, 지역조사 학습, 지도화 학습 등 실습 강좌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심화과정 과목 중에서 사회과교육과 일반사회교육이 명칭상 혼동되거나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양자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과교육이라는 강좌명을 사용하면서도 지리나 역사 영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사회(정치·경제, 사회·문화) 영역을 전제하여 강좌 내용이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가령 서울교대). 이런 경우는 일반 사회교육 혹은 공민교육이라고 개칭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일반사회교육이라는 강좌명을 사용하면서 사회과교육 공통(사회과교육의 역사, 이론, 영역별 교수-학습 전략, 수업모형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가령 전주교대).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사회과교육이라는 강좌명으로 개칭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명칭 및 개념을 구분하는 일 역시 초등 지리교육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의 하나일 것이다.

6. 맺음말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최소한 과반수는 학부 4년 동안 지리 강좌를 전혀 이수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 현장에 투입되며, 그 수준에서 사회과교과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지리 영역을 가르친다. 교육대학교 학생들 중 사회과 심화과정을 선택하지 못한 비율은 입학 정원의 약 90%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학부 과정에서 지리 영역을 이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오직 교양과정이다. 이들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사회과 심화과정의 편제·운영 문제조차 정상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사회과 심화과정 중 지리 영역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사회과 심화과정을 선택한 예비 교사들에게 있어서, 교육대학교의 교양과정과 심화과정을 총괄하여 이수 가능한 지리 영역의 강좌 수는 내용화 영역에서 0~2강좌, 지리교육 영역에서 0~1강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리 영역이 현 초등사회과 교육과정과 사회과교과서 전체의 1/3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학부과정에서 지리 영역을 거의 이수하지 못한 교사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것은 초등사회과 교실 현장에서 지리 영역에 대한 물이해와 탈맥락화를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내용 지식을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필자의 교실 수업 참관이나 대학원(교사) 강의 경험을 통해서도, 가령 대축척 지도와 소축척 지도의 차이를 단순히 지도의 크기

차이로 설명한다거나, 등고선 개념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투명 모형도 기법을 모르고 있거나, 나침반의 북쪽을 지도상의 북쪽과 동일한 것으로 가르친다거나, 도시와 촌락을 양분된 개념으로 다룬다거나, 문화경관을 형태적으로만 파악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왜곡된 내용 지식이 전수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6학년의 세계지리 내용을 가르칠 때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나 스케일 링크지(scale linkage)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고 분포학적 설명을 하는 수준에서 대체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교과내용학적 지식이 부족한 데에서 촉발되며, 그 문제의 책임은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의 전체 교육과정에 있을 것이다. 필자는 구체적으로 교육대학교의 사회과 심화과정이 기형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전공과정(교육학 일반, 교과교육학, 교육실습), 교양과정(계열별로 출자·개설, 총 학점은 전공과정의 약 1/2), 그리고 심화과정(교과전담제를 대비하여 설치, 총학점은 전공과정의 약 1/4)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볼 때 교육대학교의 예비 교사들에게는 '초등교육' 그 자체가 전공이며, 소위 사회과교육과, 과학교육과, 국어교육과 하는 등등의 학과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학과 구분이 의미를 가진다면 그저 사회과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하는 것일 뿐이며(사회과교육), 과학 강좌들을 좀 더 수강하는 것(과학교육과)일 뿐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심화과정은 예비 교사들이 교과내용학적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여기에서 부족한 내용은 교양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심화과정이 교양과정은 물론이고 전공과정과 연동하여 편제·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심화과정은 교과내용화 부문을 중심으로 편성하되, 교과교육학의 경우는 사회과교육(공통)에 관한 메타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등 구체적 내용 특성을 고려한 심화적 성격의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수준의 초등사회과 교육과정과 사회과교과서의 내용에 정합시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을 심화과정에서 균형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교육과정을 적극 실천한다는 점에서도 긴요하며,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의 형평성에 기초해 지리교육의 취약성을 만회하고 나아가 초등사회과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해야 하는 교육적 논리에도 합당할 것이다.

註

- 1) 교육대학교의 4년제 승격(1981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1980년 교육부(당시 문교부)에서는 서울교대, 인천교대 교수를 중심으로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연구위원 11명을 위촉하였다. 이들은 교육 대학 4년제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연구를 통하여 1981년부터 연차적으로 승격되는 교육대학부터 적용할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이 때 제출된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심화과정은 머지않은 장래에 교과 담임제가 실시될 것이라는 초등교육의 변화의 가능성을 예상하여 마련된 것이었다(인천교육대학교 50년사, 1997, 636-637).
- 2) '사회과교육전공'이라는 명칭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곳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이 유일하다. 엄격히 말하면 이곳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자만이 교육대학교의 사회과교육(공통) 강좌들을 담당할 자격이 있다. 그 외의 대학에서는 사회과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중 하나의 이름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따라서, 심화과정에 개설된 사회과교육 강좌를 어떤 전공 배경의 교수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충분히 논란거리일 수 있다. 교육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회과교육 전담 교수의 출신 배경은 사실상 지리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중 하나로 수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3) 본 단원에 제시된 내용은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과제 「사회과 심화과정 프로그램 개발」 보고서(2006-29-4) 중 필자의 원고(제Ⅳ장)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 4) 정합성(coherence)이란 그 체제의 내부적 조화 관계를 의미한다. 장의선(2004)은 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정합성을 내용 영역의 특성, 학습자 스타일, 그리고 스캐폴딩 사이의 조화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장의선, 2004, 13).

文獻

경인교육대학교, 2003, 대학요람(2004-2005).
 공주교육대학교, 2004, 공주교육대학교 요람.

광주교육대학교, 2006, 대학요람(2006-2007).
 김재복 외, 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사, 서울.
 남상준, 2002, "초·중등 지리교육과정 개발과정의 평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1), 1-11.
 남호엽, 2002, "초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1), 53-64.
 대구교육대학교, 2005, 대구교육대학교 요람(2005-2006).
 류재명·서태열, 1997, "제7차 지리교육과정 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구 지리·환경교육), 5(2), 1-28.
 박선미, 2005, "제7차 사회과교육과정의 내적 타당성 평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3), 301-315.
 부산교육대학교, 2006, 부산교육대학교 요람(2006-2007).
 서울교육대학교, 2006, 대학요람(2006-2007).
 송언근, 2004, "지리 영역에서 바라 본 사회과 교육과정의 반성과 설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2), 229-245.
 인천교육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1997, 인천교육대학교 50년사(1946-1996).
 장의선, 2004, 지리교과 교수요소간 유기적 정합성,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2006, 대학요람(2006-2007).
 제주교육대학교, 2005, 제주교육대학교 요람(2005).
 조성욱, 2004,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분리적 통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2), 287-301.
 진주교육대학교, 2002, 대학요람(2001-2003).
 최원희, 2004, "제7차 사회과교육과정 지리 영역의 현상과 과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2), 247-271.
 춘천교육대학교, 2005, 대학요람(2006).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1997,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

교신 : 전종한, 407-75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이메일: jonghan@gin.ac.kr, 전화: 032-540-1229)

Correspondence: Jeon, Jong-Han,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Republic of Korea(e-mail: jonghan@gin.ac.kr, phone: 032-540-1229)

최초투고일 07. 1. 10.
 최종접수일 07. 3. 12.